

어이없는 실수로 고발 당한 축산진흥원

지난해 설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알고보니 무허가 허가 없이 시범운전도... "행정절차 제대로 숙지 못해"

제주도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시범 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거두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시는 제주도축산진흥원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11월 허가(변경 허가) 없이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1일 15t의 가축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의 약 80%를 방류수 수집 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렇게 정화 처리된 물은 돈사 세척수, 소독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다. 도 축산진흥원은 14억5000만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이 시설을 설치했다.

도 축산진흥원의 행정 절차 위반은 뒤늦게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 도 축산진흥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살펴본 도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가축분뇨법 11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도 축산진흥원은 가축분뇨 액체 비료 처리 시설·냄새 저감 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정화 시설을 더 설치한 것이기에 이는 법이 정한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해 미리 제주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는 도 축산진흥원이 준공 검사(건물, 장비 등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일)도 안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 시범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도 축산진흥원을 고발하는 한편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고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엄벌하겠다고 이미 지난해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행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축산진흥원은 시의 지적에 뒤늦게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미 물은 옆질러진 뒤였다.

도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늦긴 했지만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8월부터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것이다. 농가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폐수배출시설 조사하니 불법 수도록

제주시 점검 49곳 중 10곳 경고·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폐수 불법배출에 오염 우려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5월까지 폐수배출시설 49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행정처분(경고 4곳, 사용중지 2곳, 조업정지 1곳, 개선명령 3곳)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곳은 고발하고 5곳에 과태료(500만원), 3곳에는 초과배출부과금(411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폐수 불법배출이 이어지면서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과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8월 말까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하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사업장은 최근 2년간 행정처

분을 받은 사업장과 주요 수계 주변,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69곳으로, 지역 주민·환경단체·전문가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에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처리수를 채수한 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위반 사항 채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128)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괭생이모자반과 사투 한달간 4000t 거뒀다

제주시 수거량 5년만 최대 인력 2800여명 투입 안간힘

제주연안으로 대량 유입된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수거가 한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서만 수거량이 4000t을 넘겼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거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거한 괭생이모자반은 모두 희망농가에 퇴비로 공급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13일 이후 제주시 연안으로 대량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현재까지 4202t(해안면 2805t, 해상 1397t) 수거해 이 가운데 4027t을 14농가에 퇴비로 공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지역에서는 2015년 8891t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고 2019년 860t, 2018년 2087t, 2017년 4363t이 수거됐는데, 이달 말까지 유입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5년만에 수거량이 많은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해상에서는 선박 6척(해양환경공단 2척, 어촌어항공단 3척, 어장



지난 13일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일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의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원들이 비 날씨에도 괭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화선 1척)을 동원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중이다. 해안에선 상시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 100명을 비롯해 각 읍·면·동의 어촌계·해녀회 등 자생단체와 환경단체(적십자·바다사랑보존협의회·해병대 9연단 등)의 지원을 받아 수거중이다. 현재까지

2838명의 인력과 포클레인 등 장비 132대가 투입됐다.

시는 매년 이맘때면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괭생이모자반 퇴비 수요를 조사했고, 현재까지 39농가에서 7000t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수거

되는 것도 전량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예년에는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수요가 적어 t당 44만원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했는데, 올해는 퇴비 수요를 일찍 조사해 전량 공급하면서 약 17억7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문미숙기자

경찰관 사칭사기 60대 송치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64)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보험실계사 B(66·여)씨와 B씨 아들 등 피해자 3

명에게 모두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청와대 자문위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전과 26범으로 이전에도 경찰을 사칭해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기자

"산업보건위 구성해 안전 노동환경을"

정의당 도당 교육감에 촉구

제주도내 학교 급식소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공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약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3건, 골절되는 사고가 1건 발생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감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7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현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

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중 자택에서 의붓딸 B(당시 11세)양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년간 묻혀 있던 이 사건은 B양이 2017년 8월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민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은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